

이달부터 달라진 전력산업계 제도

민간발전사업자 전기 공급 구역전기사업 첫 도입
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기 직판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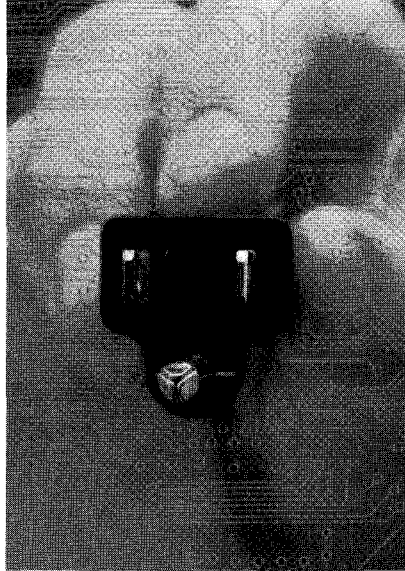
올
하반기

에는 한전이 독점하던 전기 공급을 민간 발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되며,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.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

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,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크게 늘어난다. 산업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'하반기 달라지는 제도'에 따라 올 하반기 전기전력계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 내용을 정리했다.

민간 발전사업자 전기 직판 허용

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'구역전기사업제도'가 이달부터 도입됐다.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대도시 도심과 재개발 지역, 주상복합건물, 대형 위탁시설 등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 기존 한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.



방, PC방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보육 시설, 유치원, 공연장, 영화관, 백화점, 할인점, 종합병원, 호텔 등만이 전기안전의무 점검 대상이었다.

외국인 투자환경 개선

이달부터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자유지역이 통합되고 외국인투자환경도 대폭 개선됐다. 통합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.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. 또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,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 한전 직판 허용

설비용량 200kW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전에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전력량계 설치비와 전력거래소 연회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. 이 밖에 정부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 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

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과 석유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.

전기안전점검 다중시설 확대

사업개시 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, 목욕장, 찜질방, 고시원, 산후조리원, 전화방, 수면방, 콜라텍 등 8종의 업소가 추가됐다.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, 비디오방, 노래

여기에다 입주 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기 위해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된다.

| 전기저널 편집실 |